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결 정

사 건 명 19-직권-00005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 해 자 ○○○○학교 학생들

피 조 사 자 ○○○(○○○○학교 교사)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피조사자가 오랜 기간 일상적 반복적으로 다수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조사자를 신분상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 2. ○○○○학교장에게

가. 교사의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하여, 위와 같은 폭력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인격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나. 선도부 유사기구를 통한 교문지도와 선도부 유사기구인 학생생활지원부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다.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피해 회복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특별인권교육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사건의 개요

#### 가. 직권조사 실시 배경

2019. 8. 20.(화)경 학교폭력사안보고가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학교 교사가 해당학교의 학생들에게 폭언, 체벌 등 폭력 행위를 했다는 것이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피해 사실이 특정되었으며, 가해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해자: ○○○○학교 학생들

다. 피조사자: ○○○(위 학교 ○○○○부장/○○교사)

라. 사건요지

피조사자는 2018. ~ 2019.경 다수의 피해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손과 발을 사용하여 신체의 여러 부위를 가격하는 등 부적절한 폭력 행위를 하였다.

## 2. 조사 방법과 경과

가. 조사방법: 관련자 면담조사, 서류조사, 학생 면담과 설문 조사 등

나. 조사경과

- 2019. 8. 20.(화) 학교폭력사안보고 접수
- 2019. 8. 21.(수) ○○○○학교 방문 기초조사 실시
- 2019. 8. 26.(월) 13:30~16:00 1, ○학년 ○개 반 학생설문조사 실시
- 2019. 9. 2.(월) 기초조사 보고와 직권조사 계획 수립
- 2019. 9. 10.(화) 참고인(동료교사, 학생) 면담조사
- 2019. 9. 17.(화) 피조사자 면담조사 실시

## 3. 관련규정

[붙임 4] 와 같다.

## 4. 당사자 주장

가. 피해자 주장

[붙임 1] 와 같다.

## 나. 피조사자 주장

[붙임 2] 와 같다.

## 다. 참고인 주장

[붙임 3] 과 같다.

## 5. 인정사실

당사자들(피해학생들, 피조사자)의 주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폭언 등 인격권 침해 관련

- 1) 1학기 ○○수련회 때, 학생이 다리를 다쳐서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라 아픈 친구들과 함께 숙소 같은 방에 있어도 되냐고 묻자, “그냥 각자 방에 있어. 씨○ 새○들아 좀”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 2) 학생회 선거에 나가려던 학생이 피조사자를 찾아가다가 복도에서 피조사자 얼굴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자 학생에게 “이 씨○새○야. 니는 선거나간다면서 학생부 선생도 몰라? 하, 씨○ 선거 나가는 새○들이 다 정신이 없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 3) ○○부 학생에게 전화로 ‘씨○○○’등 욕설을 하였다.
- 4) 학생들이 그냥 지나가면 “야, 이 새○야 인사 좀 하고 가자”라고 말하였다.
- 5) 등교지도시 늦었는데도 슬슬 걸어가는 학생들에게 “씨○ 개○○”라

고 욕설을 하였다.

- 6) 학생이 피조사자에게 한 손으로 펜을 주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 7) 학생들에게 “야, 이 새○들아 닥치라고” 말했다.
- 8) 교문지도를 같이하는 ○○○ 학생에게, 근처 ○○○○학교 학생 중 조금 똥똥한 ○○학생이 지나가면 ○○○ 학생의 몸이 똥똥하다는 이유로 “오랜만에 나왔네. 저기, 니 동생 지나가네”라고 말하였다.
- 9) 새○, 시○, 지○, 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욕설을 하였다.

#### 나. 체벌 등 폭력 관련

- 1) 2018년 6~7월경 ○학년 ○반 ○○○ 학생이 청소년 박람회에 먼저 택시를 타고 갔다는 이유로 명치를 수차례 때렸다.
- 2) 학생들이 떠들거나 핸드폰을 하는 경우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
- 3) 2018년경 도서관에서 학생이 책꽂이 위에 발을 올렸다는 이유로 때렸다.
- 4) 2018년경 ○○○ 학생이 만화책을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 5) ○○○ 학생이 도서관 청소에 늦었다는 이유로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 6) 2019년경 주먹으로 학생의 가슴을 때렸다.
- 7) 학생부실에 온 학생들에게 “야, 이 새○야, 뭘 일이야?”라며 학생들의 머리를 툭 쳤다.
- 8) 학생생활지원부 소속 학생이 아침 교문지도에 늦을 때마다 욕설을

하고 명치를 때렸다.

- 9) 2019년 5월경에 교문 앞에서 학생의 손을 피조사자가 손힘으로 조르는 행동을 하였다.
- 10) 2019년 5월 초경 담배를 피우다 걸린 학생에게 학생부실에서 욕을 퍼부으며 허벅지를 때렸다.
- 11) 2019년 6월경 점심시간에 담배를 피우다 걸린 학생의 담배를 모두 부러뜨리고, 라이터를 압수하고, 담배 피운 개수대로 손을 짹 쥐거나 가슴부분을 세 대 때렸다.
- 12) 2019년 5~6월경 ○학년 ○반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하게 한 후 막지 말라고 말하며 가슴부분을 세 대 때렸다.
- 13) 학생들이 떠들거나 핸드폰을 하는 경우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

## 6. 판단

### 가. 총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해당 학교 생활규정 제21조 또한,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나. 인격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에 대하여

피조사자의 위 인정사실 가.와 같은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조사자는 일상적으로 다수의 학생에게 “새○, 시○, 지○, 병○”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욕설을 하였다.

또한, 피조사자의 이와 같은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학생 생활교육 중 특정한 상황에서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었다. 그 피해 범위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수의 학생들이 피조사자의 언어 폭력에 노출되

었다.

피조사자는 본인이 해당 학교의 졸업생이자 학생들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학생 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부적절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으며, 교사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도 어떤 이유로든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조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욕설과 폭언을 들은 학생들이 느꼈을 수치심, 모욕감, 분노감, 좌절감 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 피조사자가 다수의 학생들의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조사자의 위 인정사실 나.와 같은 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조사자는 2018~2019경 다수 학생들의 가슴, 머리,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일상적 폭력 행위에 대해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조사자가 일부 폭력 행위만 기억하고 인정한 이유는, 피조사자가 습관처럼 일상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조사자가 자신의 폭력 행위들을 전부 다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자신의 폭력 행위를 전부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조사자는 학생 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으며, 2019년 경 학교의 동료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전달연수)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조사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이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피조사자가 습관처럼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행위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우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피조사자가 일상적으로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은 학생인권과 폭력에 대한 매우 낮은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피조사자의 이러한 행위를 교내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피해학생 외 다른 학생들 역시 폭력에 노출되었으므로 피해의 범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피조사자의 이러한 체벌 또는 폭력 행위는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조사자의 폭력 행위로 학생들이 수치심, 모욕감, 분노감, 좌절감 등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인격권 또한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 다. 소결

위와 같이, 피조사자는 본인의 행위가 관련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일상적, 반복적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인격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피조사자에게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와 같은 폭력 행위는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 7.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31.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박정현 (인)

[붙임]

## 관련 법령

###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